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양관광콘텐츠 연구

A Study on the Contents of Marine Tourism according to the Entry of UNESCO Human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Jeju Haenyeo Culture

정 민 의* · 이 응 규**

Jung, Min-Eui · Lee, Woong-Kyu

ABSTRACT

The term 'cultural heritage' has changed content considerably in recent decades, and this partially owes to the instruments developed by UNESCO. Cultural heritage does not end with monuments and collections of objects. It also includes traditions or living expressions inherited from our ancestors and passed on to our descendants. These traditions include oral traditions,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s, rituals, festive event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or the knowledge and skills to produce traditional crafts.

Fragil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n important factor in maintaining cultural diversity, especially at this time of globalization. An understanding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different communities helps with intercultural dialogue, and encourages mutual respect for other ways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son why Jeju Haenyeo culture is registered as a UNESCO human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tudy reveals four important points of why Jeju Haenyeo culture is listed in the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nd proposes them as a development plan for marine tourism contents in Korea.

First, Jeju Haenyeo culture symbolizes and establishes the unique cultural identity of its region. This means that we need to develop marine tourism contents in each coastal area and fishing village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of times and demands of marine tourists. Second, Jeju Haenyeo culture is a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 in a

*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경영전공 교수 : (주저자)

**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경영전공 교수 : (교신저자)

nature-friendly way. This mean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diversify eco-friendly marine tourism contents. Third, it is a viewpoint that the culture of Jeju Island is developed and operated at the eye level of marine tourists. This means that marine tourism contents developed in the future should be revitalized by securing programs developed and operated from the viewpoints of tourists. Fourth, it is a viewpoint that the Jeju Haenyeo culture has been continuously passed through related knowledge and technology through the community. This means tha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raditional marine tourism contents and its history must be provided not only offline but also online as well.

Key Words(핵심용어) : Jeju Haenyeo Culture(제주해녀문화), UNESCO human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cultural identity(문화적 상징성), marine tourism contents(해양관광콘텐츠), marine tourists(해양관광객), fishing village(어촌마을), maritime tourism(해양관광)

국 문 초 록

현재 주요 관광선진국들은 세계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등재 후보군을 마련하고 등재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자국의 관광경쟁력을 확보하는 부수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유산보호와 보전의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며, 향후 자국의 관광콘텐츠의 핵심 콘텐츠(killer contents)가 된다는 점, 그리고 외래 관광객에게 이(異)문화체험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등재신청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 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각광 받고 있는 전통 어업이나 해양문화 등에 대한 해양관광콘텐츠 연구를 집중하여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계획은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17년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말한다. '제주도 해녀어업'이 2015년 12월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이것은 제주해녀가 맨몸으로 무자맥질해서 소라, 해삼, 전복, 미역, 천초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전통어업시스템을 말하며, 제주해녀와 연관된 불턱, 해신당, 해녀복과 낚, 골갱이, 수중안경 등의 물질도구 등 유형유산자원과 잠수굿, 요양맞이제, 액막이, 씨드립과 같은 무형유산자원 등 독특한 해녀문화를 진화시켜온 유·무형의 유산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2016년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강인한 개혁정신과 여성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생태, 경제, 해양 등의 가치를 지닌 제주해녀문화가 이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해양관광콘텐츠로서의 역할과 가치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의 상징과 가치를 반영하는 소중한 해양문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해 나가야할 과제가 주어진 만큼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해수욕활동이나 어촌

체험활동, 바다낚시 등 단편적 해양관광활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양레저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해양문화가 확산되고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해양관광산업이 연안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 속에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모델을 개발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해양관광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업종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해양관광육성체제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된 이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방향 네 가지 관점을 제안했다. 첫째, 제주 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고 확립해준다는 관점에서 시대상황과 해양관광객의 요구에 발맞춘 우리나라 각 해안지역과 어촌 지역의 해양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제주해녀문화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친환경적인 해양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제주해녀문화가 해양관광객의 눈높이에서 개발되고 운영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 개발될 해양관광콘텐츠도 관광객의 시선이나 관점에서 개발되고 운영되는 프로그램 확보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제주해녀문화가 관련 지식과 기술을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승해왔다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집단지성을 활용한 신뢰도 높은 역사성과 전통이 갖는 해양관광콘텐츠의 생산 공간과 매개 공간을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인 온라인에서도 제공해야 한다.

I. 서 론

우리나라의 ‘제주해녀문화’가 2016년 11월30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 우리나라의 인류무형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이상 2009), 가곡, 매사냥, 대목장(이상 2010),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택견(이상 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가 있으며, 제주해녀문화(2016)는 19번째 인류무형유산이 됐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 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여 등재한 것이다(KBS News, 2016).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됨으로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해양문화가 세계인들 에게 관광콘텐츠로서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양관광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독특하고 우수한 우리나라의 해양문화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제주해녀문화 등과 같이 해양관광콘텐츠로 활용한 가치가 있는 다양한 해양관광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보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공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전통 어업문화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¹⁾ 추진 중인 어업문화는 제주 해녀어업과 남해 죽방렴, 신안 천일염업, 보성 빨배어업 등이 있다. 2016년 12월 2일 현재, 해양수산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제주 해녀어업 등 4건에 대해서이다.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으면 전통 어업문화를 보존하는 데도 기여하고, 침체된 어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죽방렴은 물살이 드나드는 좁은 바다 물목에 대나무 밭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원시어업으로, 남해의 멸치잡이가 대표적이다. 보성 빨배어업은 배 모양의 도구로 갯벌을 이동하며 꼬막 등 조개류를 채취하는 어업이다. 신안 천일염업은 염전으로 끌어들이는 바닷물을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 등 다양한 기술과 기법이 필요한 전통 어업법이다. 모두 오랜 기간 내려온 한국만의 독특한 어업 형태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이 관광객이 들어도 생소하고 다양한 해양관광콘텐츠가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다(이원갑 외, 2010). 그래서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해양관광상품화가 가능한 관광콘텐츠들을 분석할 필요가 대두되는 것이다.

현재 주요 관광선진국들은 세계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등재 후보군을 마련하고 등재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자국의 관광경쟁력을 확보하는 부수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유산보호와 보존의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며, 향후 자국의 관광콘텐츠의 핵심 콘텐츠(killer contents)가 된다는 점, 그리고 외래 관광객에게 이(異)문화체험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등재신청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 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각광 받고 있는 전통 어업이나 해양문화 등에 대한 해양관광콘텐츠 연구를 집중하여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해양문화에 관한 문헌고찰 등을 실시하였다.

II. 해양관광콘텐츠의 이론적 고찰

1.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의 중요성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설정하거나 관광개발계획 수립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2012; 대구광역시,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2; 해양수

산부, 2015; 행정안전부, 2011). 해마다 반복되는 천편일률적인 보고서 내용 중의 일부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충해 몇 년 후에는 관광객이 2배 이상 늘어나도록 하겠다”,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콘텐츠 융합형 창조관광도시로서 산악관광, 해양관광, 산업관광, 역사문화관광,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 콘텐츠형 사업전략”으로 달성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울과 제주, 부산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공업도시이거나 도(都)·농(農)복합도시로서 급성장해온 관계로 관광산업에 있어서 뒤쳐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있는 관광자원조차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서비스업도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을 통해 먹거리가 충분히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관광산업에는 관심을 덜 쏟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국가 및 기업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제조업 성장정체가 현실화가 되고, 서비스업과 관련한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해 관광스토리텔링 개발 등의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독창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관광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양관광콘텐츠의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충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광역시·도(道) 등의 지자체가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풍부한 해양관광콘텐츠를 지니고 있고 오랫동안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어서 개발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박문기, 2008; 허재완, 2000). 특히, 자연과 학습을 융합할 수 있는 바다의 보고인 잘 보존된 갯벌이 많다는 점(오세라·박윤선·임정빈, 2015; 최중두, 2014), 오랜 시간 바다와 함께 해 온 전통어로법 등의 해양체험활동이 풍부하다는 점(안미정, 2007; 임지희, 2011), 그리고 해양을 소재로 한 다양한 해양문화와 예술작품 등(강미주, 2013; 강준수·송영민, 2015; 김홍섭, 2010)이 있어 다양한 계층의 해양관광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울산의 경우처럼 세계적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를 지닌 도시도 있고, 관광수요를 불러일으킬만한 낙동강 하구와 순천만 갈대밭 등의 철새도래지도 각 지역에 산재해 있고, 신비한 자연현상이 경관인 전남 진도의 신비의 바닷길 등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관광의 요소인 ‘재미’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관광객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나가는 국내의 해외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이(異)문화 체험에 목말라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재미를 제공할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한 해양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김민철, 2007). 무엇보다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이(異)문화 + 재미 체험’가능 해양관광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나열하는 것으로 해양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함으로 대처해왔다. 이제 그것이 역부족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해

양관광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다. 향후 예산을 들여 다채로운 해양관광자원을 확충하기 보다는 제주해녀문화와 같이 오히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롭고 재미있는 특별함으로 가득한 이(異)문화 체험'이 가능한 하나라도 제대로 된 해양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삼면이 바다라는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미래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지역과 과거 해양관광도시의 이점을 지닌 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적인 해양문화 관광콘텐츠를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해양관광콘텐츠로 개발하는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연 및 인류 문화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섬과 해양도시들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체험을 바탕으로 문화적 상상력과 향기를 사실적·가상적으로 구성하여 해양관광객으로 하여금 미지의 해양세계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와 해양관광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관광을 통해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성 함양과 보람 있는 관광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해양관광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더욱더 진화하도록 해야 한다.

2.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의 현대적 의의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의 현대적 의의를 찾는 것은 어촌의 다양한 생활문화자원이 해양관광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관광자원의 보고(寶庫)라는 사실 때문이다. 최근 어촌은 어업자원의 고갈과 어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어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어촌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해양관광정책 차원에서 어촌관광개발을 선택하고 있다(이승우·홍장원·이윤정, 2009).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다른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가치가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외면해왔던 해양지역의 생태·문화·역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인해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해양관광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때가 되었다.

제주해녀문화 등과 같은 해양관광자원은 지역문화관광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원들이다. 대상화된 이들 자원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관광개발의 주체가 되어야만 하고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개발될 때 가능하다. 즉, 대규모 시설 관광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소규모의 개발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광개발과 관광객의 시선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개발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외래 관광객이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해양문화 관련 관광체험을 하게 하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숙소와 먹거리, 기념품, 지역 특산물 등이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제공되어야만 외래 관광객이 감동한다는 측면에서 관광객 눈높이의 소프트웨어적인 해양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Urry, 1990).

어촌관광은 도시민들이 연안과 도서지역의 어촌에 머물며 어민들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해양문화를 이해하며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서,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김성귀, 2001). 해양관광콘텐츠를 자원으로 하는 어촌관광은 육지에서 생활하는 도시민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이국적인 정취를 준다.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농촌의 녹색관광(green tourism)은 물론 푸른 바다와 해안이 있어 청색관광(blue tourism)까지 겸한 반농반어(半農半漁)가 우리나라 어촌관광의 장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섬과 바다는 단순한 볼거리의 차원을 넘어 어민들의 생업공간이라는 점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문화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데, 우리나라의 해양관광콘텐츠는 수천 년 전부터 어민들의 생활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해양관광콘텐츠로서 아주 귀중한 해양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이 가치가 있는 어촌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섬과 바다 그리고 갯벌 등이 어촌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야 한다. 육지를 중심으로 한 대중관광이 한계에 이르면서 최근 섬과 바다를 자원으로 하는 해양문화관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제주해녀문화 등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때를 해양관광개발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쏟아야 한다. 어촌은 외래 관광객들에게 각종 문화체험, 해양생태관광, 다양한 욕구 충족, 믿을 수 있는 수산물 구입, 외래 관광객들의 스트레스 해소 공간과 분위기 등을 제공한다(신동주·손재영, 2008; 이계열·이동신, 2012). 그러나 이들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촌에 대한 자긍심, 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자원보전의식 등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외래 관광객들의 ‘관광욕구’와 어촌주민들의 ‘소득창출욕구’를 ‘가고 싶은 어촌’과 ‘살고 싶은 어촌’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 해양관광문화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외래 관광객과 어촌의 인적, 경제적 교류와 유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촌관광에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해양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앞장서는데 필요한 외래 관광객과 어촌 연결 교류센터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외래 관광객들은 물론 어민들에게도 관광정보제공, 어촌관광 기획, 안내자 교육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교류센터에는 반드시 지역연구자, 문화기획자, 마을추진주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어촌관광 협업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촌관광 관련 정보의 교류, 비영리단체 등 민간단체의 어촌관광에 참여, 해양문화와 역사 등 다면적 관점에서의 접근, 관광정보 및 관광콘텐츠의 외래 관광객 제공, 친환경적 자연 순환형 에너지 사용, 어촌체험을 교육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어촌관광을 통한 지역 소득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김준, 2006).

3. 제주해녀문화와 같은 해양관광콘텐츠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주해녀문화와 같은 해양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첫째는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어촌지역의 전통 어촌문화를 발굴하여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거나 보존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시대상황에 맞게 어촌지역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어촌지역의 새로운 풍속도 내지는 어촌문화를 개발하는 것이다.

첫 번째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박준모(2016), 이윤선(2010), 홍석준(2005, 2006)의 연구처럼 진도 문화의 해양문화관광자원을 해양관광콘텐츠화 한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서·남해 지역의 바다와 섬의 역사와 문화의 보고(寶庫)이자 산실이기도 한 진도 지역과 같은 해양관광목적지를 해양관광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진도는 예로부터 전남의 예향 전통을 계승한 지역으로도 유명한 곳으로서 육지세계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진도 나뭇대로의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도서성(insularity)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집권체제에서 벗어나 바다와 섬만의 고유성과 진정성을 보전할 수 있었다. 다도해의 절경을 배경으로 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 변모해 온 진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역사·문화적 자원과 민속문화는 21세기 새롭게 세계로 향하는 신해양 실크로드의 문화중계자(culture hub)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각종 해상문화자원의 활용과 레포츠의 응용, 건강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 세계화의 진전 등의 21세기 신해양시대의 변화에 맞게 진도와 진도 사람들의 전통 어촌문화를 발굴하여 새롭게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양관광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해양관광객의 욕구충족을 위한 측면에서 진도의 사회와 문화를 개발하고 활용한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즉, 진도가 과거의 문화적 흔적에서 연유한 세계와 단절되어 육지로부터 유배된 사람들이 집결하여 신세타령을 위한 음풍농월이나 중앙 회기로의 막연한 기대나 동경을 염원하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이 지배하던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21세기 신 해양 시대를 주도하면서 전 세계의 해양세계의 가치와 원리를 재구축하는 해양문화의 전진기지이자 문화 발신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적 모습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콘텐츠의 보고(寶庫)로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진도와 같이 해양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며, 수많은 해양 역사문화 관련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해양관광콘텐츠화하고자 하는 인적 자원의 양성과 이에 대한 기술적, 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연구로는 주강현(2004)이 분석한 것처럼 태안반도 전통어법 돌살, 울산 장생포와 반구대의 고래문화, 기장 멸치와 멸치축제, 우이도의 모래 산, 울릉도 저동항의 오징어, 울진 후포항과 왕돌초 등과 같은 어촌의 무형 재산인 역사와 민속을 해양관광콘텐츠로 발굴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양관광스토리텔링과

연계한 안영숙(2014)의 연구처럼 스토리텔링으로서 우리나라 전국 해안지역에 퍼져있는 ‘해양 개척정신’의 가치와 ‘해양문화콘텐츠’를 해양관광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해안지역과 어촌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해양·어촌문화 지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해양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시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해양관광문화 융합 아카이브’ 완성에 필요한 기초 과정이며, 향후 제주해녀문화와 같이 우리나라가 지닌 ‘해양문화 원형의 인터페이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키는 지침서 역할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첫 시작은 해안과 어촌지역의 인문사, 예술사, 생활사를 고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해안과 어촌지역은 ‘문화 다나미시앵(dynamicien)²⁾’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문화 융합 아카이브의 해양관광문화 게이트웨이(gate way)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는 해양개척정신의 진취적인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해안지역은 장보고대사의 해상무역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장인정신과 이순신의 휴머니즘적 리더십과 불굴의 호국정신, 그리고 어부들이 살아왔던 전통적인 삶의 흔적이 공존한다(이응규, 2012). 따라서 지역정책과 행정이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면서 관광도시, 문화도시, 축제도시로 대표되는 전국의 해안지역의 해양문화콘텐츠 현황 파악 및 스토리텔링 원형을 발굴하여 해양관광을 위한 인문도시로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안지역의 해양관광문화 원형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해양관광문화 아카이브가 창조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가치를 담은 해양관광콘텐츠의 다양한 개발의 ‘해양관광문화 게이트웨이(gate way)’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강릉시가 최근 커피투어로 인기를 끌자 이를 계기로 강릉 커피투어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김은희, 2014)을 제시한 예이다. 이는 김보성과 이응규(2014)가 제시한 해양문화의 콘텐츠 활용, 홍관식(2012)의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스토리텔링 개발방안과 같이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해 온 어촌지역의 문화를 현대의 외래 관광객에게 제공하면서 해양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원용태·고석규(2010)의 서남해안 해양영웅 캐릭터와 캐릭터상품 개발 연구, 성경·김수열·박성수(2014)의 해양환경 정보제공 콘텐츠 개발 연구, 조상필·신동훈(2011)의 해양공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원용태 외 3인(2008)의 서·남해안의 역사, 문화, 관광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학습하기 위해 개발한 3D 낚시게임 등 특정 해안지역과 어촌지역의 지형과 어종, 유물을 소재로 지역의 해양관광문화자원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해양에듀테인먼트 소재로의 활용은 ‘재미’를 바탕으로 지역해양관광문화에 대한 교육효과를 쉽게 거둘 수 있으며 지역의 해양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연구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해양문화를 제주해녀문화와 같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관광객의 방문동기와 욕구충족, 만족도 극대화와 재방문율을 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좌혜경·강정식,

2014). 해양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들의 방문동기를 분석한 선행연구(강석규, 2015; 고호석, 2010; 정철·김완수, 2009)처럼 해양문화자원을 해양관광콘텐츠로 만들고자 하는 해양도시들은 관광스토리텔링을 개발할 때 삶의 여유와 휴식, 그리고 낭만의 공간뿐만 아니라 진취적이며 전통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다가 인식될 수 있도록 '바다'라는 강력한 콘텐츠를 길러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4. 해양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산업 발전과의 관계연구

관광콘텐츠는 지역이나 도시의 가장 핵심적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며 이는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 깊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하드웨어만 갖추어진 기존의 관광지의 차별적 효과의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은 기존의 관광 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지도록 관광기반시설에 최적의 콘텐츠가 개발·연계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곧 관광의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수행해야 할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에 대한 명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은 인간에게 감동을 창출할 수 있는 소재로 제작, 가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양관광콘텐츠가 해양관광객에게 전달될 때 관광상품으로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관광상품의 수명과 해양관광객 만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해양관광콘텐츠 개발과 활용은 이를 소재로 한 해안지역이나 어촌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이를 통한 지역 차별화 및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관광콘텐츠는 해양관광의 요소가 되는 내용물로서 특정 어촌지역의 매력물과 편의시설, 그리고 잠재적 항목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최지연·이익수, 2007). 상기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관광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양관광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개발방향이나 일관성 있는 개발준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양관광콘텐츠가 상호 유사한 내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제주해녀문화와 같이 문화 콘텐츠, 시설 콘텐츠, 활동 콘텐츠 등을 모두 갖춘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관광과 문화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문화관광산업이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문화관광산업을 보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고자 하며, 보다 차별적인 장소자산을 찾고자 한다. 최근에 세계관광기구(UNWTO, 2016)는 향후 2020년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10대 관광 트렌드를 모험관광, 문화관광, 도시관광, 국제회의, 테마파크, 해변관광, 스포츠관광, 크루즈관광, 생태관광, 농(어)촌관광이라고 지적하였다. 관광 트렌드에서 보듯이 해변관광, 스포츠관광, 크루즈관광, 농(어)촌관광 등은 해양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활동으로 해양과 연계된 관광산업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세계관광시장은 해양레저/스포츠나 마리나산업, 크루즈관광산업, 해중레저산업 등 해양관광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관광시장의 수요가 새롭

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해양관광은 해양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연관된 관광행위를 말하며 해양과 직접 연관되는 해양 의존형과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해양 연관형 활동으로 구분된다(김성귀, 2013). 특히, 우리나라의 해양관광활동 시기는 7월과 8월에 크게 집중되고 있으며, 강원권과 부산권의 관광활동 비중이 높아 하계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박수진·홍장원, 2012). 또한 해양관광활동의 선호도와 관련하여 현재 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광활동과 향후 참여의향을 가지고 있는 관광활동을 비교해보면 참여경험에서는 해수욕의 비중이 높다. 향후 관광활동 참여의사에서도 해수욕이나 해산물 구매/시식활동은 선호도가 높은 실정이다. 반면, 해양레저스포츠나 크루즈, 생태관광 등은 경험률이 비교적 낮은 반면 참여희망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적 해양관광 영역에 속하는 해수욕이나 해산물 구매활동은 이를 지속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나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영역은 기반시설의 정비와 시장육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법의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해양관광활동 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으로는 시설부족 및 낙후, 관광지 정보 부족, 미흡한 경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기반시설 정비와 안내체계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Ⅲ. 제주해녀문화를 통한 해양관광콘텐츠의 개발방향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해수욕활동이나 어촌체험활동, 바다낚시 등 단편적 해양관광활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양레저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해양문화가 확산되고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또한 해양관광산업이 연안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 속에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해양관광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업종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해양관광육성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이유인 네 가지 관점에서 해양관광콘텐츠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 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시대상황과 요구에 발맞춘 해양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제주해녀문화와 같이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해양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해야 한다. 셋째, 제주해녀문화와 같이 관광객 눈높이의 해양관광콘텐츠의 확보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제주해녀문화와 같이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한 신뢰도 높은 해양관광콘텐츠의 생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1. 시대상황과 요구에 발맞춘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해양관광콘텐츠의 개발

제주해녀문화에서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 ‘해녀노래’ 등이 대표적인 제주해녀문화의 문화유산 등재의 주요 평가 요인이다. 대부분의 어촌지역은 어업문화 이외에 다양하고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어촌지역이 즐기는 어업 이외에 척박하고 험난한 바다와 기후, 풍토 등을 이겨내기 위해 오랜 기간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왔는데, 이는 현재 어촌지역을 방문하는 해양관광객에게 이(異)문화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소중한 해양관광콘텐츠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고 확립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말라카의 사례가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화인(華人)사회의 바비논야(Baba Nonya) 문화³⁾를 말한다(Clammer, 1986). 우리나라의 사례는 과거 역사를 통해 부산지역의 음식문화에 상호영향을 주고 받았던 한·일간의 음식문화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한 부산음식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해양관광콘텐츠를 개발(이중수, 2016)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과거 해양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소재 활용 및 발굴(장보고의 해상왕국, 독도와 울릉도 이야기 등), 다양하고 신비로운 해양이야기의 상징화(만파식적, 적산가옥, 전통어로법 등), 최근의 해양관광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해양관광기반조성(마리나 항만, 크루즈 전용부두 설치, 해양레포츠 시설 및 선박 건조 등), 바다와 인간 세트의 배치와 구조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해양문화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공간 확충(해양박물관, 해양박물관, 커피투어⁴⁾, 와인투어⁵⁾ 등) 등이 대표적인 주5일제 등의 시대 상황과 적합한 해안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해양관광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2.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해양관광콘텐츠의 다양화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콘텐츠의 발굴이 필요하다. 과거의 해양관광개발이 대단위 시설조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가장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해양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제주해녀문화의 잠수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문화와 같은 해양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맥락의 해양관광콘텐츠로는 전통어로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고기잡이는 바다와 바람과 물때에 순응하는 자연친화적 어로방법이다. 이는 인류의 시작부터 자연환경에 순응하거나 극복하면서 지켜온 전통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안미정, 2007; 임지희, 2011).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이고 생태적인 어로의 비밀을 어민들의 생활사 속에서 조망해 전통어로문화의 원형을 드러냄으로써 해양관광콘텐츠를 다양화시킬 수 있다.

재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주해녀문화의 디지털라이징 문화원형의 복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통어로방법과 어구(漁具)가 우리나라 도서해양문화의 유산임과 동시에 세계 해양문화의 유산임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서해양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에 그물처럼 돌담을 쌓은 것, 이른바 ‘독살’은 대표적인 자연친화적인 전통 어로법으로서 상업적으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지만, 생태학적으로는 보존 가치가 뛰어난 것(나신하, 2014)으로 전통적인 해양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첫째, 자연 순응형의 서남해안은 너른 갯벌이 펼쳐져 있는데, 전통어로 유형으로는 ① 죽방렴, 석방렴, 개막이, 덩장, 밀그물질 / 종계호미, 조새, ② 낙지잡이, 패류채취, 짱뚱어잡이 / 굽게, 맛창, 빨배(씨레), 가래, 죽대, 반두, ③ 흑산도 홍어, 조기잡이, 장어낚시 등이 있다. 둘째, 바다 개척형의 동해안의 전통어로 유형으로는 ① 고래잡이, 반구대 암각화 / 작살, 보채낚시, ② 오징어잡이 / 찍낚시, 강꼬 등이 있다. 셋째, 제주도 해역의 전통어로 유형으로는 ① 전복, 소라 등의 패류채취, 자리돔잡이, 멸치잡이, ② 눈, 태왁, 망사리, 적마깨, 방진그물 등이 있다.

한편, 시설중심의 해양관광개발사업은 지역간 차별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신규시설이 조성될 경우 기존 시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해양관광개발은 해양자연자원과 더불어 해양문화자원, 배후 내륙지역의 관광자원을 모두 연계하여 상품화 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요구된다. 즉, 과거와 같이 해수욕장을 개발할 때처럼 단순히 백사장 정비나 여름철 해변축제를 개최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를 사계절 동안 활용할 수 있는 해양관광콘텐츠의 발굴을 통하여 계절성과 극성수기의 바가지 상흔을 극복해야 한다. 해양생태관광사업에 있어서도 단순한 갯벌체험이나 수산물 채취체험에서 벗어나 이를 통한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어촌생활문화, 지역해양생활문화까지 연계하여 해양관광활동 참여자에게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해양관광콘텐츠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시설투자 중심의 개발 사고에서 벗어나 해양관광프로그램 개발이나 해양관광콘텐츠상품개발, 해양관광스토리텔링 구축을 위한 논의와 정부 차원의 지원, 그리고 해양관광콘텐츠에 대한 소셜 미디어 등의 뉴미디어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관광객 눈높이의 해양관광콘텐츠의 확보로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제주해녀문화 등재에 따른 ‘해녀문화 국제화 콘텐츠 개발’이 관광객 눈높이에서 추진됨으로써 해

양관광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특히, 제주해녀문화가 깨끗한 물과 공기, 풍부한 해양자원과 청정어업기반을 결합한 해녀문화 국제화 콘텐츠는 영등굿과 불턱, 일상풍속, 장례문화, 노동요, 이어도, 숨비소리 등으로 연계·확장되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통성과 흥행성, 대중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주 해양관광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지식이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 해양관광객들이 제주 해녀문화와 관련된 해양관광정보를 재생산·재해석함으로써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특히, 문화와 역사를 단순하게 체험하고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단순 체험형 관광에서 벗어나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고 소셜 미디어 등의 뉴미디어의 새로운 해양관광콘텐츠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12월에 제주해녀와 함께 '전남 보성 뽕배어업'과 '경남 남해 죽방렴어업'이 제2호, 제3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는데, 뽕배어업은 아주 미세한 진흙 위에서 꼬막을 채취하는 어업으로 고려사에 강요주(江瑤珠)를 잡는 어업이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어업형태이다. 그리고 죽방렴어업 역시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정치성(定置性) 함정어구(陷筭漁具)를 설치해서 조업을 하는 친환경적 전통어업이다. 이와 같은 전통 어로법은 우리나라의 어촌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지닌 어업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해 어촌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를 서둘러야 한다. 즉, 어촌에 남아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자원의 보전·활용을 통해서 어촌공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어촌개발전략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방향성은 제주해녀문화와 같이 반드시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개발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4.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면서 집단지성을 활용한 신뢰도 높은 해양관광콘텐츠 생산 공간 제공

제주해녀문화가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 간 전승되는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제주도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등이 등재의 주요 요인들이었던 것처럼 향후 개발될 해양관광콘텐츠는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면서 집단지성화 되어 신뢰도가 매우 높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제주도에서 제주해녀문화를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와 학습공동체 등 세계 보편적 가치를 구축하고, 외부 혁신에 대한 탄력적 융합으로 지속가능한 창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지역 해양문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일반 대중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해당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문화 수요자를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양문화의 보존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경호, 2016). 따라서 제주해녀문화와 같이 이미 집단지성에 의해 신뢰도가 높아진 해양관광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는 의미이다.

한편, 집단지성에 의해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면서 신뢰도가 높아진 어촌지역의 해양문화는 해양관광콘텐츠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어민들이 스스로 힘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지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독일의 뮌헨공과대학 내에 맥주제조학파가 있는 것처럼 제주지역 대학교에 해녀문화학과를 신설하는 것, 해녀문화학과와 커리큘럼 역시 물질만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해양과학, 해양자원, 생태환경, 잠수생리, 해녀의 문화와 역사, 관광통역, 관광경영 등 해녀 문화 전반에 관련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생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이한영, 2016)하는 것처럼 많은 어촌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생산과 유통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IV. 결 론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 잠재력 또한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국내 해양관광활동 행태가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도 그 이유가 있지만 바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무시경향과 낙후지역으로서의 어촌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주강현, 2006a, 2006b, 2006c). 절대적으로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에 대한 지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해양관광레저문화를 육성하지 못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도 지역별 해양관광 발전 모델 발굴과 더불어 해양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따라서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 등 동북아지역의 관광시장 성장에 대응하여 연안지역의 해양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해양관광 상품화시켜 해양관광대국으로서의 국제적 경쟁력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해녀문화가 세계화를 위한 3관왕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17년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말한다. '제주도 해녀어업'이 2015년 12월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이것은 제주해녀가 맨몸으로 무자맥질해서 소라, 해삼, 전복, 미역, 천초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전통어업시스템을 말하며, 제주해녀와 연관된 불턱, 해신당, 해녀복과 낚, 골갱이, 수중안경 등의 물질도구 등 유형유산자원과 잠수굿, 요왕맛이제, 액막이, 씨드림과 같은 무형유산자원 등 독특한 해녀문화를 진화시켜온 유·무형의 유산자원이 풍부했기 때문

이다.

제주해녀문화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된다고 한다면, 2016년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강인한 개척정신과 여성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생태, 경제, 해양 등의 가치를 지닌 제주해녀문화가 이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해양관광콘텐츠로서의 역할과 가치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의 상징과 가치를 반영하는 소중한 해양문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해 나가야할 과제가 주어진 만큼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지적하고자 했던 사항은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된 이유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서 제안했던 4가지는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이유인 네 가지 관점이 그 중요 내용이다. 첫째, 제주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고 확립해준다는 관점에서 시대상황과 해양관광객의 요구에 발맞춘 우리나라 각 해안지역과 어촌 지역의 해양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제주해녀문화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친환경적인 해양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제주해녀문화가 해양관광객의 눈높이에서 개발되고 운영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 개발될 해양관광콘텐츠도 관광객의 시선이나 관점에서 개발되고 운영되는 프로그램 확보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제주해녀문화가 관련 지식과 기술을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승해왔다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집단지성을 활용한 신뢰도 높은 역사성과 전통이 깃든 해양관광콘텐츠의 생산 공간과 매개 공간을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인 온라인에서도 제공해야 한다.

주

- 1) 세계 중요 농업 유산 시스템(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은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사회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몇 세기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 이용, 전통적인 농업과 관련하여 육성된 문화, 경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차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에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창설한 제도이다. 자연경관이나 문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달리, 세계중요농업유산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세계의 다양한 농·어업 방식 등을 유지·보전하는 의미에서 지정한다. 심의회는 2년에 한 차례 열리며 2017년에 예정돼 있다(박용하, 2016).
- 2) 문화 디나미시앵(dynamicien)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문화프로슈머가 모여 형성한 집단을 말한다(안영숙, 2014).
- 3) 중국에서 이주해 온 화인(華人) 남자와 현지의 말레이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뼈라나칸

(peranakan)으로 불리는데, 이 중에서 남자는 바바(baba), 여자는 논야(nonya)로 불린다. 이 둘을 합쳐 바바논야라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은 명나라 공주가 말라카의 술탄에게 시집을 오면서부터 말레이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바바논야란 말레이시아에 이주해 온 화인들의 후예로 현지인 말레이계 여자와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바바논야 문화는 말라카에서 시작된 것으로 유명하다. 예로부터 말라카 지방은 타 문화 수용성이 높은 데다 화인 이주민들의 영향을 받은 바바논야 문화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문화양식을 만들어 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뼈라나간은 중국과 말레이의 혼합 문화 및 종족을 뜻하는 말로 보통 중국인 남성과 말레이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족들의 문화가 섞여있다. 정화(鄭和)의 원정 이후로 동남아 각지에 진출한 화인 상인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왔지만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애착과 엄청난 부를 일구어 냈다는 자부심이 강했다고 한다. 여기에 그들의 다양한 문화까지 녹아들어 ‘뼈라나간’이라는 독특하면서도 고유한 문화가 탄생했다(Kessler, 1992).

- 4) 커피투어(coffee tour)는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지만 비릿함 대신 커피의 그윽한 향기가 해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안목해변, 즉 강릉이 대표적이다. 바다와 가까운 거리에 횃집 대신 카페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이 커피거리라 불리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리 큰 규모의 도시가 아닌 강릉에 300개가 넘는 카페들이 문을 열게 된 것은 커피거리 이전에 이곳을 지키고 있던 수많은 자판기 카페, 즉 ‘길거리 카페’부터 시작되었다. 카페가 흔치 않던 시절, 자판기 커피 한 잔에 추운 몸과 마음을 녹이면서 바다를 바라보던 수많은 연인들과 관광객들의 추억을 이제는 ‘Coffee & tour’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는 강릉 지역 커피숍을 다니며 차를 마시고 도장을 받아 선물을 받는 ‘스탬프 랠리’, 커피와 함께 하는 강릉의 자전거 투어 ‘자전거 타GO 커피 마시GO’, ‘커피 투어 버스’, ‘연계 축제 투어 버스’, ‘다양한 커피 관련 전시’와 ‘버스킹 공연’ 등 커피향 가득한 향기로운 지역축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김은희, 2013). 이외에도 부산, 제주, 인천, 여수, 목포 등 많은 해안지역의 관광도시들이 커피투어와 커피축제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 5) 와인투어(wine tour)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의 그린영농조합에서 실시하는 ‘와이너리 투어’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와인투어는 외국의 와인투어에 비해 비교적 재미있거나 여유 있는 일일 관광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그린영농조합과 함께 하는 와인투어(Wine Tour)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도 산지에 자리한 최고의 와이너리로서 전문 와인 가이드와 함께, 와인에 대한 사실과 지식, 노하우를 배우고, 셀러 도어에서 와인 시음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은희, 2014). 점심시간에는 와이너리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와인이 곁들여진 ‘바지락칼국수’ 런치를 만끽할 수 있다. 오후 여정에는 대부도의 탄도항, 누에섬 등대, 갯벌체험 등의 해양관광체험이 포함되며, 오래된 대부도의 전설과 가까운 영흥도 등의 인천상륙작전 이야기들을 듣고 견학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참 고 문 헌

1. 강미주, 2013, “무한한 영감의 원천, 해양을 만나라-바다체험 문학 늘어...예술인 해양체험 주목”, 『월간 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2013.6.28.
2. 강석규, 2015, 제주 해양관광객의 수요결정요인 분석, 『탐라문화』, 4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201-220.
3. 강준수·송영민, 2015, 해양문학의 관광스토리텔링 : 하멜 표류기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9(12), 한국관광연구학회 : 145-154.
4. 고경호, 2016, “[제주해녀, 세계를 품다] 보전·전승·글로벌 콘텐츠 마련 시급”, 『뉴스1』 : 2016.12.1.
5. 고희석, 2010, “해양관광객의 참가동기가 관여도와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

- 니스』, 15,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1~25.
6. 광주광역시, 2012, 『제5차 광주권 관광 개발계획(2012-2016)』, 광주광역시 : 1-237.
7. 김민철, 2007, 『한국 도서관관의 매력요인 분석 : 도서관의 관광콘텐츠 유형에 따른 관광매력요인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40.
8. 김보성·이웅규, 2014, 해양문화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스토리텔링 개발방안, 『한국도서연구』, 26(1), 한국도서학회 : 25-48.
9. 김성귀, 2001, 어촌관광의 활성화 방안, 『해양수산』, 19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30-43.
10. 김성귀, 2013, 『해양관광론』, 현학사 : 1-583.
11. 김은희, 2013, 강릉 커피투어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연구』, 25(4), 한국도서학회 : 95-116.
12. 김은희, 2014, 대부도 와인관광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연구』, 26(1), 한국도서학회 : 99-120.
13. 김준, 2006, 관광 콘텐츠로서 어촌의 문화자원 연구, 『도서문화』, 28,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347-378.
14. 김홍섭, 2010, 우리나라 새로운 해양문화의 도입과 확장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6(4), 한국항만경제학회 : 269-288.
15. 나신하, 2014, “독살, 자연친화적 해안 생태계 오아시스”, 『KBS뉴스』 : 2014.1.20.
16. 대구광역시, 2011, 『제5차 대구권 관광개발계획(요약보고서)』, 대구광역시 : 1-342.
17.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년-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 1-178.
18. 박문기, 2008, 『낙후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터프론트에 관한 연구 :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4.
19. 박수진·홍장원, 2012, 우리나라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8(2), 해양환경·안전학회 : 131-133.
20. 박용하, 2016, “제주 해녀어업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 『경향비즈』 : 2016.12.2.
21. 박준모, 2016, “역사자원의 어촌관광 적용방안 연구”, 『해양정책연구』, 3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29.
22. 성경·김수열·박성수, 2014, “해양환경 정보제공 콘텐츠 개발 연구 : 수중지형 및 수중생태 환경정보를 중심으로”, 『한국항행학회논문지』, 18(5), 한국항행학회 : 409-414.
23. 신동주·손재영, 2008, “어촌관광 방문동기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3), 한국관광학회 : 255-273.
24. 안미정, 2007,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42.
25. 안영숙, 2014, “스토리텔링으로서 ‘통영정신’의 가치와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도서문화』, 44,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237-264.
26. 오세라·박운선·임정빈, 2015,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체험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하진갯벌체험 마을 사례”,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1(2), 한국농촌계획학회 : 23-32.

27. 원용태·고석규, 2010, “서남해 해양영웅 캐릭터 및 문화관광상품 개발”, 『도서문화』, 36,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285-321.
28. 원용태·이말레·노효원·곽훈성, 2008, “해양 에듀테인먼트 게임의 개발과 활용”,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14,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37-46.
29. 이계열·이동신, 2012, “어메니티를 이용한 어촌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신안군 비금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4(3), 한국도서학회 : 121-136.
30. 이승우·홍장원·이윤정, 2009,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119.
31. 이용규, 2012, “동북아시아의 평화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관광의 역할”, 『관광연구저널』, 26(5), 한국관광연구학회 : 95-114.
32. 이원갑·이종훈·홍장원·이윤정·현우용, 2010,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165.
33. 이운선, 2010, “도서·해양민속 기반의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한국연구재단 : 1-36.
34. 이종수, 2016, “조선시대 부산과 왜관의 음식문화 교류와 변동 분석”, 『해항도시 문화교섭학』, 1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189-221.
35. 이한영, 2016, “[제주해녀, 세계를 품다] 보전·전승·글로벌 콘텐츠 마련 시급”, 『뉴스1』 : 2016.12.1.
36. 임지희, 2011, 『서해안 해양 환경에서 전통 어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24.
37. 정철·김원수, 2009, “해양관광객의 관광동기 :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의 관계”, 『관광학연구』, 33(6), 한국관광학회 : 131-149.
38. 조상필·신동훈, 2011, “전남 해양공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녹색전남』, 71(통권), 전남발전연구원 : 115-146.
39. 좌혜경·강정식, 2014, 『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1-198.
40. 주강현, 2004, “문화가 어촌을 살찌운다 : 어촌의 무형 재산인 역사와 민속”, 『어항』, 69(통권), 한국어촌어항협회 : 47-52.
41. 주강현, 2006a, 『관해기 1 : 일상과 역사를 가로지르는 우리 바다 읽기, 남쪽바다』, 웅진지식하우스 : 1-314.
42. 주강현, 2006b, 『관해기 2 : 일상과 역사를 가로지르는 우리 바다 읽기, 서쪽바다』, 웅진지식하우스 : 1-326.
43. 주강현, 2006c, 『관해기 3 : 일상과 역사를 가로지르는 우리 바다 읽기, 동쪽바다』, 웅진지식하우스 : 1-328.
44. 최종두, 2014, “개별여행비용법을 통한 갯벌관광객의 방문편의 추정모형에 대한 실증비교분석”, 『국제·경영연구』, 58, 한국기업경영학회 : 81-94.

45. 최지연·이익수, 2007, “고지도를 활용한 도시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10), 한국콘텐츠학회 : 396-403.
4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 1-231.
47. 해양수산부, 2015, 『국가어항 레저관광개발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 1-413.
48. 행정안전부, 2011,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 행정안전부, 1-413.
49. 허재완, 2000, “낙후지역 개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어항어촌연구』, 2, 한국어촌어항협회 : 57-70.
50. 홍관식, 201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항해항만학회 : 328-331.
51. 홍석준, 2005,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해양문화의 특징과 의미 : ‘해양문화의 지역체계 만들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양문화학』, 창간호, 한국해양문화학회 : 45-66.
52. 홍석준, 2006, “진도의 바다 세계와 진도 문화의 해양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도서문화』, 28,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499-518.
53. Clammer, John R., 1986, “Ethnic Processes in Urban Melaka”, In Raymond L. M. Lee (ed.), *Ethnicity Monograph Series*, Occasional Paper, 12 : 47-72.
54. Kessler, Clive S., 1992, “Archaism and Modernity: Contemporary Malay Political Culture”, In Joel S. Kahn and Francis Loh Kok Wah (eds.), *Fragmented Vision: Culture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Malaysia*, Sydney, Allen and Unwin : 133-157.
55. KBS News, 2016, 제주 해녀 ‘공동체 문화’ 인류유산 등재, 『KBS News』 : 2016.12.1.
56. UNWTO, 2016, *Tourism Market Trends UNWTO*, UNWTO Tourism Highlights, 2016 Edition: 1-16.
57. Urry, J., 1990, *The Tourist Gaze: Leisure and Travel in Contemporary Societies*, London, SAGE : 1-183.

(논문접수일 : 2017. 3. 16 / 논문수정일 : 1차-2017. 3. 27 / 영문초록검수일 : 2017. 4. 23 / 게재확정일 : 2017. 4. 24)